

## 제 5 부 부 록

---

- I. 역대 구청장·부구청장 명단
- II. 문 화 재
- III. 지 명 유 래
- IV. 우리고장 명소
- V. 2006년 주요 구정일지
- VI. 직 제 표

## I. 역대 구청장·부구청장 명단

### □ 역대 구청장 명단

구 분	직	성 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비 고
1 대	부이사관	서 종 수	1987.12.31	1990. 7. 4	2년 7월	
2 대	"	신 종 관	1990. 7. 5	1992. 5. 1	1년 10월	
3 대	"	김 부 환	1992. 5. 2	1994. 1. 2	1년 8월	
4 대	"	박 종 식	1994. 1. 3	1995. 3.28	1년 3월	
	지방부이사관	박 승 진	1995. 3.29	1995. 6.30	3월	권한대행
민선1대	정 무 직	윤 석 천	1995. 7. 1	1998. 6.30	3년	
민선2대			1998. 7. 1	2000.11. 9	2년 4월	
	지방부이사관	이 동 환	2000.11.10	2001. 4.26	5월	
민선3대	정 무 직	김 문 곤	2001. 4.27	2002. 6. 30	5년 2월	
			2002. 7. 1	2006. 6. 30		
민선4대	정 무 직	고 봉 복	2006. 7. 1			

### □ 역대 부구청장 명단

구 분	직	성 명	취임일	이임일	재임기간
1 대	지방서기관	이 규 상	1988. 1. 1	1989. 4.14	1년 4월
2 대	지방부이사관	추 길 명	1989. 4.15	1993. 1.17	3년 10월
3 대	"	김 흥 구	1993. 1.18	1993. 3.29	2월
4 대	"	김 상 원	1993. 4.15	1994. 1. 3	9월
5 대	"	이 석 우	1994. 1.20	1994.12.31	1년
6 대	"	박 승 진	1995. 1. 1	1996. 6.30	1년 6월
7 대	부이사관	류 종 식	1996. 7. 1	1998. 6.30	2년 2월
	지방부이사관		1998. 7. 1	1998. 9.14	
8 대	"	심 재 옥	1998. 9.15	1999. 7.28.	10월
9 대	"	정 영 석	1999. 7.29	2000. 7. 4	11월
10대	"	이 동 환	2000. 7. 5	2001.12.31	1년 5월
11대	"	김 형 양	2002. 1. 1	2004. 1.30	2년 1월
12대	"	윤 종 대	2004. 1. 31	2004. 6.29	5월
13대	"	이 정 기	2004. 6. 30	2005.11.30	1년 5월
14대	"	정 윤 광	2006. 2. 1		

## II. 문 화 재

### □ 범어사 3층석탑

- |                   |                        |
|-------------------|------------------------|
| ◎ 종 류 : (국가지정) 보물 | ◎ 지정일자 : 1963. 1. 21   |
| ◎ 지정번호 : 제 250 호  | ◎ 소재지 : 청룡동 546(범어사경내) |

이 석탑은 신라 흥덕왕(826~836) 재위 때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2층기단(基壇)위에 세워진 3층석탑이다. 하층기단은 각면에 탕주(撐柱)없이 3구식(區式)의 안상(眼象)을 조각하였고, 상층기단은 중석(中石)을 높게 하고 각 면석(面石)에 깎들어 차게하고 각 안상을 조각하여 그 수법이 특이하다. 1층 탑신(塔身)에 비해 2층 이상의 탑신은 매우 작게 줄었으며, 옥개석(屋蓋石)은 추녀가 수평을 이루나 옥개받침은 4단으로 되었고 평평하고 얇아 신라(下代)의 양식을 드러내고 있다.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般)과 후대에 보충한 보하대주(寶珠)만이 있을 뿐 다른 부분은 없어졌다.

일제시대에 크게 수리한 바 있어 기단(基壇)의 석재(石材)를 첨가한 까닭에 이례적으로 우뚝 솟아 보여 이색적인 느낌을 갖게하며 주위의 난간(欄干)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 □ 범어사 대웅전

- |                   |                        |
|-------------------|------------------------|
| ◎ 종 류 : (국가지정) 보물 | ◎ 지정일자 : 1966. 2. 28   |
| ◎ 지정번호 : 제 434 호  | ◎ 소재지 : 청룡동 546(범어사경내) |

이 대웅전의 초창은 잘 알수 없으나 임진왜란때 병화를 입어 1603년(선조35년)에 관선사(觀禪師)가 재건하였다하며 이것도 오래지않아 다시 소실되었다 한다. 현존하는 건물은 1614년(광해6년)에 묘전화상(妙全和尚)이 건립한 것으로 1713년(숙종39년)에 흥보화상(興寶和尚)이 중수(重修)한 것이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곳을 말하는데 이 대웅전에는 주존불인 석가여래(釋迦如來)를 비롯하여 좌협시(左脇侍)인 미륵보살(彌勒菩薩) 그리고 우협시(右脇侍)인 가라보살(迦羅寶薩)의 삼존(三尊)을 모시고 있다. 건물의 규모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니나 구조가 섬세하고 아름다워 조선조 중기 불교건물의 좋은

표본이 되며 정면의 아담한 교창(交窓)과 닻집의 섬세한 조각과 장식은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목조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 □ 금정산성

◎ 종 류 : (국가지정) 사적	◎ 성내면적 : 2,512 천평
◎ 지정번호 : 제 215 호	◎ 성 문 : 4개 (동,서,남,북)
◎ 지정일자 : 1971. 2. 9	◎ 망 루 : 4개 (1,2,3,4망루)
◎ 길 이 : 17,337 m	◎ 소 재 지 : 금성동 금정산 일대

동래부(東來府) 및 양산, 기장의 피난겸 항전성(抗戰城)으로 전장(全長) 17,337m, 높이 1.5m~3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성이다. 이 산성은 위치 및 규모로 보아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후 일본의 재침입에 대비하여 경상감사(慶尙監司) 조태동(趙泰東)의 건의로 숙종 29년(1703)에 쌓은 것이다. 숙종33년(1707)에 동래부사(東來府使) 한배하(韓配夏)가 중성(中城)으로 수축하였고, 순조8년(1808)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이 중수(重修)하였다. 순조4년(1824)에는 동래부사 이규현(李奎鉉)이 이곳에 별장(別莊)을 배치하였다. 평상시에는 성내에 있는 해월사(海月寺), 국청사(國淸寺)의 승려가 성벽의 보수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일제의 암흑기에 일인(日人)들에 의해 훼손, 황폐화되었던 것을 1971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 2년에 걸쳐 동 서 남 문을 복원한 후 꾸준히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 종 류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 면 적 : 55,934㎡
◎ 지정번호 : 제 176 호	◎ 소 재 지 : 청룡동 산 2-1
◎ 지정일자 : 1966. 1. 13	(범어사 경내)

이 일대에는 등나무가 자연생장하여 약 500그루나 무리지어 자라고 있는데 나무의 나이는 가장 오래된 것이 약100년 정도이다. 예로부터 이곳은 많은 등나무가 서로 엉켜자라고 있어서 등운곡(藤雲谷)이라고 불리어지며 금정산 절경의 하나로 꼽히어 왔다. 원래 등나무는 콩과(科)에 속하는 낙엽성 덩굴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이남의 산이나 들에 자라는 식물이지만 관상용(觀賞用)으로 심어 가꾸는 것이 흔히 있을 뿐 이곳처럼 넓고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

는 곳은 매우 드물다. 등나무의 높이는 최고 15m, 최저 1m이며 가슴높이 둘레는 최대 40cm이다. 이들 등나무가 4~5월의 개화기를 맞이하면 바위틈에 노출되기도 하고 다른 나무에 감기기도 하면서 보라색의 꽃송이를 녹음속에 피워 계곡을 한결 아름답게 장식한다

## □ 범어사 조계문

- |                   |                         |
|-------------------|-------------------------|
| ◎ 종 류 : (국가지정) 보물 | ◎ 지정일자 : 2006. 2. 7     |
| ◎ 지정번호 : 제 1461 호 | ◎ 소재지 :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

일주문(一柱門)은 만법(萬法)이 구족(具足)하여 일체(一切)가 통한다는 법리가 담겨있어 일명 삼해탈문(三解脫門)이라고도 하며, 원래 사찰건물의 기본배치에 있어서 사찰경내에 들어갈 때 맨 먼저 지나가야하는 문이다. 이 문의 초창연대는 알수 없으나 광해군 6년(1614) 묘전화상(妙全和尚)이 사찰내 여러건물을 중수할 때 함께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숙종44년(1718) 명흡대사(明洽大師)가 석주(石柱)로 바꾸고 백암선사(白岩禪師)가 현재의 건물로 중수(重修)하였다한다. 삼문으로 처리하고 높은 주초석 위에 짧은 기둥을 세운 점 등은 특이한 수법이다. 정면 3칸 측면은 일주(一柱)로 맞배지붕, 겹처마, 다포식(多包式)외삼출목(外三出目)의 형식이고 공간포(空間包)가 일구씩 배치되고 있는 목조기와 건물이다.

## □ 범어사 대웅전 석가 영산회상도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2006. 11. 25 |
| ◎ 지정번호 : 제67호      | ◎ 청룡동546(범어사경내)       |

범어사 대웅전 후불벽을 짝 채운 채 걸려 있는 이 석가영산회상도는 1882년에 제작된 족자형의 대형 탕화이다. 화면 중앙에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한 채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10대제자 및 외호신중(外護神衆)들이 불격에 따라 크기를 달리한 채 부채꼴을 이루면서 좌우대칭적인 구도로 균중 형식을 띠며 묘사되어 있다. 또한 대형 화면에 자비로운 미소를 자아내고 있는 본존불을 위시한 협시상들과 엄숙한 표정의 신중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품 아랫부분에 기록된 화기(畵記)를 통해 대웅전 내에 봉안되어져 있는

삼장보살도, 제석신중도와 관음전의 백의관음도 등과 함께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이 작품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대형의 후불탱화일 뿐 아니라, 구도와 채색이 뛰어나며 제작 당시의 용상방(龍象榜)과 불화 제작에 참여한 17명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등 조선후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문화재로 판단된다.

### ▣ 범어사 대웅전 심방보살도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2006. 11. 25 |
| ◎ 지정번호 : 제68호      | ◎ 청룡동546 (범어사경내)      |

범어사 대웅전 내부 좌측 벽면에 걸려 있는 본 작품은 석가영산회상도 및 제석신중도와 함께 1882년에 제작되었다. 크게 상·하단으로 나누어진 화면의 윗부분에는 가운데 천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좌상의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한 삼장보살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주위로 천부중들이 배치되어 있다.

하단부는 새 깃털 장식 투구를 쓴 동진보살과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들의 무리를 중심으로 좌우에 신장(神將) 무리들이 3단으로 열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묘사되어 있다. 화면에는 모두 79위의 도상을 묘사하고 있다.

화기를 통해 대웅전 내에 봉안되어져 있는 석가영산회상도, 신중도, 관음전 백의관음도 등의 제작에 관여했던 화승에 의해 제작된 이 작품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작품의 규모도 큰 편이며, 특히 조선후기 삼장도상과 신앙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평가된다.

### ▣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2006. 7. 3 |
| ◎ 지정번호 : 제63호      | ◎ 청룡동546(범어사경내)     |

본 건물은 현재 범어사 대웅전 서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부속 불전의 하나로, 적어도 1706년 이래 존속했던 위치에 변함없이 존속하고 있었던 건물이다. 1902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까지는 중앙의 천태문(天台門)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팔상전과 나한전이란 별개의 건물이 서 있다가, 1905년 11월~1906년 11월까지 약 1년에 걸친 공사 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되

었다. 따라서 서측의 팔상전 부분과 동측의 나한전 부분의 건축 형식은 변개(變改)되지않고 1906년 중건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1706년 이래의 노후된 부재의 교체와 내부 가구(架構)가 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06년에 단장된 독성전(獨聖殿) 부분은 문틀을 하나의 통재를 사용해서 반원형으로 구부려 만든 독특한 모습이고, 창방 사이의 삼각형 벽체 부분에는 통판(通板)으로 널쿨 형상을 초각하였으며, 창호도 팔상전과 나한전이 교살창인데 비해 독성전은 화문살로 아름답게 꾸미는 등 장식수법이 유례(類例)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나다.

이상과 같이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은 1906년에 중건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706년 이래의 간살, 가구(架構)와 평면, 입면 구성의 전례(前例)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하나의 건물에 세 불전(佛殿)을 모신 점, 중앙 4칸짜 독성전개구부(開口部)의 뛰어난 의장과 초각수법은 그 예가 극히 드문 만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건물로 평가된다.

## □ 금정진 관아터

◎ 종 류 : (시지정)문화재자료

◎ 지정일자 : 2006. 7. 3

◎ 지정번호 : 제36호

◎ 금성동280일원(22필지8,910㎡)

사적 제 215호로 지정되어 있던 금정산성은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1703년(숙종 29) 경상감사 조태동(趙泰東)이 석축으로 개축한 산성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성이다. 1707년 동래부사 한배하(韓配夏)가 금정산성의 중성을 축성하면서 금정산성과 산성 일대를 관리하기 위해 좌기청 6칸, 좌우행랑 각 5칸, 군기고 4칸, 화약고 1칸, 내동헌 3칸, 별전청 4칸의 규모의 금정진 관아를 만들었고, 1824년 부사 이규현(李奎鉉)이 성내에 건물을 짓고 진장(鎭將)을 배치하였다. 평상시에는 성내의 해월사, 국청사에 있는 승려들이 성벽의 보수유지를 담당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금정산성 내 금정진 관아들이 파괴되고, 여기에 있었던 무기 또한 몰수당하였다

동래부지 「관해조」편과 1872년에 제작된 ‘금정산성진지도’ 등에 금정산성 내 시 설물의 위치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금정진 관아의 건물 규모와 함께 금정진 관아의 배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문헌상으로 남아있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20~50cm 규모의 크고 작은 할석(割石)을 이용한 금정진 관아터 석축 유구가 확인되었다.

금정진 관아터는 조선후기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국내 최장의 산성인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방시설의 유지(遺址)로서 관아 규모, 운영, 직제, 성격과 관군과 승군들이 머물며 생활했던 생활상을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 오층석탑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72. 6. 26       |
| ◎ 지정번호 : 제 9 호     | ◎ 소재지 : 장전동 산30(부산대학교 박물관) |

이 탑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의 대곡사지(大谷寺址)에 있었던 것을 1966년 11월 부산대학교에서 이전 복원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석탑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단부(基壇部)와 상륜부(上輪部)는 없어져 이전시 새로 만든 것이다.

제1층 옥신석(屋身石)은 2층이상의 옥신석에 비해 매우 높게 만들고 4면에 사천왕상(동면은 지국천왕상, 서면은 광목천왕상, 남면은 증장천왕상, 북면은 다문천왕상)을 양각하였는데 정교하지는 않으나 곡선이 부드럽고 각 천왕상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2층이상의 옥신은 귀기둥만 조각하였고 옥개석(屋蓋石)은 각 3단의 옥개석 받침과 1단의 옥신피임이 있다. 폭이 좁고 높아 고준(高峻)한 느낌을 준다.

### □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72. 6. 26    |
| ◎ 지정번호 : 제 11 호    | ◎ 소재지 : 청룡동 524 (원효암입구) |

원래 이탑은 2중기단(基壇)위에 탑신부(塔身部)를 세우고 그위에 상륜부(上輪部)가 있었을 것이나 기단부와 상륜부가 없어졌다. 그리고 제2층 탑신석과 제3층 탑신석도 비레나 석질로 보아 후에 만들어 끼운 것으로 보인다. 탑신석과 옥개석(屋蓋石)의 옥개석받침은 4단씩으로 되어있다.

전체적인 조각 수법으로 보아 10세기경(신라말,고려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는 원래의 위치에 재건되어 원효암 금당(金堂)의 위치와 창건시기를 알게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 □ 원효암 서편 삼층석탑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72. 6. 26    |
| ◎ 지정번호 : 제 12 호    | ◎ 소재지 : 청룡동 525 (원효암입구) |

이 탑은 지금의 원효암에서 서북쪽으로 30m 떨어진 공지에 있었던 것을 현 위치로 이건(移建)한 것이다. 원래는 2층기단(基壇)위에 3층 탑신부(塔身部)를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上輪部)가 있었을 것이나 하대중석(下臺中石), 하대하석(下臺下石) 등과 상륜부가 없었으며 상대중석(上臺中石)의 소형석재도 원래의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대중석의 일부이거나 다른 석탑의 부재(部材)일 것으로 보인다.

각층 옥개석(屋蓋石)에는 3개의 옥개받침이 있고 옥신석(屋身石)에는 귀기둥이 조각되어 있다. 2층과 3층의 옥신성은 후에 만들어 끼운 것이다. 조각수법으로 보아 10세기경 신라말, 고려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 범어사 당간 지주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72. 6. 26    |
| ◎ 지정번호 : 제 15 호    | ◎ 소재지 :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

당(幢)이란 불가(佛家)에서 사찰의 문전(門前)에 꽂는 기치(旗幟)인데, 속칭 괘불(掛佛)이라고도 하며, 불화(佛畫)를 아주 크게 그린 것이다. 사찰에서 의식(儀式)이 있을 때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높이 달아매는 장대를 당간(幢竿)이라 한다. 당간지주는 보통 사찰의 입구에 세워지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성행하였다한다.

범어사 당간지주는 현재 지주만이 남아 있는데 좌우 모두 가로 50cm, 세로 87cm, 높이가 4.5m나 되는 거대한 석재(石材)로 되어 있으며, 두 기둥의 간격은 79cm이다.

지주의 상부 내면에는 장방형(長方形)의 간구(杆溝)가 있어 당간을 고정시켰으며, 당간의 결구(結構)를 위하여 다른 간공(竿孔)을 뚫은 것은 없다. 표면이 매끈하지 않아 둔중한 느낌을 주나 장식이 전혀 없어 검소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 ▣ 범어사 석등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72. 6. 26    |
| ◎ 지정번호 : 제 16 호    | ◎ 소재지 :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

이 석등은 신라의 의상대사(義湘大師)가 범어사 3층석탑을 건립한 3년후인 문무왕(文武王) 18년(6578)에 조성한 것이라 전해온다. 옥개석(屋蓋石)과 화사석(火舍石), 상대석(上臺石), 간주석(竿柱石), 하대석(下臺石)이 모두 팔각형을 기본으로 한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전형양식에 속하는 작품이다. 이 석등은 하대석의 복련(覆蓮)이나 상대석의 양련(仰蓮)이 모두 겹꽃으로 꽃잎이 8잎인데, 꽃잎이 단엽인 것이 쌍엽인 불국사 석등(石燈)과 다를 뿐 불국사 석등과 같은 형식에 속한다.

그러나 이 석등은 후대에 보완된 간주석(竿柱石)이 너무 빈약하여 전체적 조화를 잃었고, 상륜부의 부재(部材)들이 없어졌으며 옥개석 위에 얹힌 노반은 제짝이 아니다.

## ▣ 금정산성 부설비

- |                  |                      |
|------------------|----------------------|
| ◎ 종 류 : (시지정)기념물 | ◎ 지정일자 : 1972. 6. 26 |
| ◎ 지정번호 : 제 15 호  | ◎ 소재지 : 장전동 482번지    |

금정산성에 성을 처음 쌓은 것이 언제인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조선현종 8년(1667)에 왜구 방어책을 논의 할 때 금정산성의 보수를 거론한 것을 보면 그 이전부터 산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산성의 기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인 숙종 29년(1703)에 국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속에 축성된 것이다. 그후 태평성대가 계속 되면서 금정산성은 돌보는 이 없어 폐허가 된 것을 순종8년(1808)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이 성문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곽을 다시 쌓아 산성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이 비는 이때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비 표면에는 금정산성을 처음 쌓은 것부터 다시 설치하게된 경위와 부설공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있고 비음(碑陰)에는 공사를 감독한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있다.

또 이 비석은 큰 암반위에 놓여있는 까닭에 이전되지 않아 당시 동래성에서 금정산성으로의 출입로 위치를 시사해 주며 금정산성연구의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석재는 화강암이며 비석의 높이는 185cm, 폭 72cm, 두께가 35cm이다.

## □ 노포동 고분

- |                   |                        |
|-------------------|------------------------|
| ◎ 종 류 : (시지정) 기념물 | ◎ 지정일자 : 1996. 5. 25   |
| ◎ 지정번호 : 제 42 호   | ◎ 소재지 : 노포동 142-1번지 일대 |

노포동 고분군은 1983년 주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1986년까지 시립박물관 및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하였으며, 전체 5,000여평에서 발굴된 유구는 무문토기시대의 주거지 2동, 삼한시대의 토광묘 45기, 옹관묘 6기이고, 출토유물은 토기류 134점, 철기류 263점, 구슬류 433점, 석기 4점 등 총834점이다. 확인된 묘제(墓制)는 목곽묘(木槨墓), 목관묘(木棺墓), 토광묘, 옹관묘의 네종류이다.

본 유적은 3세기 중엽~4세기 초에 걸친 분묘유적으로 무문토기시대의 주거유적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목곽묘를 주축으로 하는 묘제와 함께 다량의 와질토기, 철제무기류, 농공구류 등은 당시 부산지역의 동태 및 외래문화의 수용과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 이안눌 청룡암시 목판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9. 3 |
| ◎ 지정번호 : 제 25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이 목판은 조선중기인 1608년 2월부터 1609년 7월까지 동래부사를 역임한 동악 이안눌(李安訥)이 지은 청룡암시(靑龍巖詩)와 범어사증도원산인(梵魚寺贈道元山人) 시를 자필로 쓴 것을 목판에 새긴 것이다.

이안눌 부사는 동래부사로 재임하는 동안 자주 범어사를 찾았는데, 당시 범어사의 혜정장로(惠晶長老)가 이부사에게 훗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시를 한수 지어 바위에 새길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부사가 시를 지어 바위에 새긴 것이 청룡암시(靑龍巖詩)인데, 현재 범어사 지장전(地藏殿)옆에 있는 청룡암전면에 새겨져 있다. 이 목판은 임진왜란 이전에 판각(판각)된 것으로 연대가 오래 되었을뿐 아니라, 우리 고장에서 부사를 역임했던 이안눌 부사의 친필 판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 [천수] 책판

- |                   |                    |
|-------------------|--------------------|
| ◎ 종 류: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1999. 9. 3 |
| ◎ 지정번호: 제 26 호    | ◎ 소재지: 청룡동 (범어사)   |

이 책판은 모두 7판으로 된 천수경판(千手經板)이다. 간기(刊記)에 의하면 강희(康熙) 15년인 1676(숙종2) 4월에 경상우도 김해 신어산(神魚山) 감로사(甘露寺)에서 개판(開板)한 것을 다시 동래 금정산 범어사로 옮겨 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끝 부분에는 호월문인(皓月門人)탁영(卓永)의 \*발문(跋文)이 붙어 있다.

천수경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부터 유통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판본을 남기면서 크게 신봉되었으며, 진언 위에 수인(手印)을 넣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관세음보살 모습을 그린 화천수(畫千手)도 크게 유행하였다.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천수』 책판 역시 당시 널리 유행하던 천수경을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해 판각한 것으로 보이며, 오래된 목판으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 □ 『어산집』 책판

- |                     |                     |
|---------------------|---------------------|
| ◎ 종 류 : (시지정) 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9. 3 |
| ◎ 지정번호 : 제 29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어산집』 책판은 모두 30판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책은 1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기(刊記)에 의하면 강희(康熙) 39년인 1700년(숙종 26)에 동래 도호부 금정산 범어사에서 개간(開刊)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산(魚山)’이란 범패(梵唄)로서 이 책판은 범음집(梵音集)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이 책판으로 인출한 책자체도 범어사 소장도서에서만 볼수 있는 귀중한 것인데, 더욱이 이 오래된 책판은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잘로서 여간 귀중한 것이 아닐수 없다.

범어사 소장의 어산집 판본은 간행 연대가 분명하며, 오래된 목판으로서 뿐 아니라 범어사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식인 범음범패(梵音梵唄) 연구에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 □ 『범어사기』, 『범어사창건사적』, 『범어사고적』 판

- |                     |                     |
|---------------------|---------------------|
| ◎ 종 류 : (시지정) 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9. 3 |
| ◎ 지정번호 : 제 28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범어사의 창건에 관한 기록을 새긴 목판으로 모두 3종류이다. 이 목판들은 3종류 모두 범어사의 창건 유래와 중창의 과정, 그리고 가람의 위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범어사창건사적』은 동계(東溪)라는 분의 기록으로 쓰여 있지만, 나머지 2종류는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남아 있지 않다.

이 3종류의 목판은 모두 오래된 목판일 뿐 아니라. 범어사의 창건 및 그 동안의 내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목판으로 범어사의 변천 과정 연구에 매우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다.

### □ 『선문촬요』 책판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9. 3 |
| ◎ 지정번호 : 제 29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이 책판은 본래 상.하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수는 모두 118판으로 빠진 부분이 없이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

간기(刊記)에 의하면 1907(융희1)경북 청도군 호거산 운문사(雲門寺)에서 처음으로 개간했으나, 이것을 경남 동래부 금정산의 범어사로 옮기고, 다시 나머지를 1908년(융희2)에 간행하였다고 한다.

78판과 118판에 시주질(施主秩) 상.하 장(丈)이 있는데, 이 두곳의 판에 도감(都監), 간사(幹事), 교정(校正), 서사(書寫), 각수(刻手), 목수(木手) 등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며, 중앙관료나 대지주 등과 같은 대시주자(大施主者)들의 지원과 또한 범어사 술오갑계원(戊午甲稷員)들의 지출경비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판의 구성을 보면 전반부에는 중국의 역대 선사(禪師)들의 저술을 실어 상권으로 엮었으며, 후반부에는 우리나라 고승(高僧)들의 저술을 실어 하권으로 엮었다.

제작연대는 오래되지 않으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책과 시주자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118판 모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한말 사찰의 목판 제작과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 『권왕문』 책판

- |                     |                     |
|---------------------|---------------------|
| ◎ 종 류 : (시지정) 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9. 3 |
| ◎ 지정번호 : 제 30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권왕문』 책판의 판수는 모두 22판이나 7, 8판이 없어지고 현재 20판만 남아 있으며, 책은 1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기에 의하면 1908(융희2) 음력 7월에 범어사에서 개간하였다고 한다. 내용은 조선말기 건봉사(乾鳳寺)의 축전(竺典)이 엮은 언문(한글)불교가사인 『권왕』 『자책가』, 『서왕가』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불교가사들은 대체로 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쳐 불심(佛心)을 일으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권왕가』는 서방정토(西方淨土)에 왕생(往生)하는 방법을, 『자책가』는 불법(佛法)을 모르고 덧없이 세월을 보낸 것을 자책하는 내용을, 『서왕가』는 출가 수도(出家 修道)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할 뜻을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판은 언문(한글) 으로 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뿐 아니라, 한말 사찰의 불교 대중화 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 □ 삼국유사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11. 19 |
| ◎ 지정번호 : 제 31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이 책은 서문과 발문(발문)이 없으나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완질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생각되며, 규장각 소장본 발문의 기록으로 보아 1512년(중종7)경주에서 개판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때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이 고구려·신라, 백제의 기록들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삼국의 역사 뿐 아니라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삼한, 후백제, 발해, 가락(가야)등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다.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국유사》 권 4-5는 간간이 보판(補板)이 있는 점으로 보아 중종 7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판본 중 1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태조3년 간본의 형태를 살필 수 있다는 점, 임진왜란 이전에 개판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간본 중 전해 오는 것이 몇 종 안되는 귀중본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서지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뛰어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 태전화상주심경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11. 19 |
| ◎ 지정번호 : 제 32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이 책은 태전화상이 《반야바라밀다심경》을 구절마다 상세히 해설을 붙인 책으로 1책의 목판본이다. 간기에 의하면 1411년(태종11)전북 고창 문수사(文殊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오래된 고판본(古版本)이면서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 매우 귀한 자료일 뿐 아니라, 《심경》에 대한 주석이 아주 상세하고 깊이가 있어 불교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인 태전화상은 당나라의 고승으로 성은 진(陳)씨(또는 楊씨라고도 함)이다. 791년 선원을 창건하여 영산(靈山)이라 하였는데, 법을 전한 문인이 1,000명이나 되었으며 스스로 호를 태전화상(太顛和尚)이라 하였다.

819년에 자사 한유(韓愈)가 조주(潮州)에 귀양왔을 때 태전화상의 명망을 듣고 그를 초청하여 10여 열을 함께 지낸 일은 유명한 일화이다. 824년에 93세로 입적(入寂)하였으며, 저서로는 《반야바라밀다심경》과 《금강경석의(金剛經釋義)》가 있다. 이 책은 동일한 판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선전기에 간행된 귀중본으로서 조선전기 불경(佛經)연구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 함허어록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11. 19 |
| ◎ 지정번호 : 제 33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이 책은 조선초기 고승인 함허화상(涵虛和尚) 기화(己和)의 시문집으로 1책의 목판본이다. 간기에 의하면 이 책은 1440년(세종22) 7월 문인인 문수(文秀)에 의해 문경 봉암사(鳳巖寺)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에는 《영가집》을 풀이한 〈영가집십장찬송병서(永嘉集十章讚頌並序)〉, 《원각경》, 《법화경》의 요지를 요약한 〈원각경송(圓覺經頌)〉 16수, 〈법화경송(法華經頌)〉 31수, 그리고 〈대승기신론석제병서(大乘起信論釋題並序)〉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함허 자신이 체득한 깨달음의 세계를 찬송하고 읊미한 것으로 〈법왕가(法王歌)〉, 〈반야가(般若歌)〉, 〈종풍가(宗風歌)〉, 〈책수음(策修吟)〉, 〈자경음(自慶吟)〉 등이 있는데, 특히 〈법왕가〉와 〈반야가〉는 깨달음의 경지를 찬송한 노래로서 문장이 유창하며 품격이 높다.

## □ 지공직지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11. 19 |
| ◎ 지정번호 : 제 34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이 책은 인도의 승려인 지공선사(指空禪師)설법을 실은 것으로 1책의 목판본이다. 간기에 의하면 1475년(성종6)전라도 백운산 백운암(白雲菴)에서 중각(重刻)하였다. 지공은 인도의 승려(?-1363)로 법명은 제납부타(提納簿陀, Dhyana-bhadra)라 하며 선현(禪賢)이라 번역한다. 가섭존자(迦葉尊者)로부터 108대로, 8세에 나란타사(那爛陀寺)율사에게 출가하였고 19세에 남인도 길상산에서 보명(普明)에게 참배하였으며, 의발(衣鉢)을 전해 받고 서역을 떠나 중국에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나옹화상(懶翁和尚)이 공민왕 때에 원나라에 가서 지공선사에게 인가(印可)를 받기도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전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석가모니와 마하가섭존자 이하 여러 존자들의 계승과 지공선사 자신의 계승을 실었고, 이어 <송선봉(頌禪棒)> 과 <달마대사행론(達磨大師行論)> 을 붙여 두었다. 후반부에는 각안(覺岸)의 <제납부타존자지공선사돈입무생대해탈법문지요서(齊納簿陀尊者指空禪師頓入無生大解脫法門指要序)> 와 함께 지공선사의 설법을 계승을 첨부한 문답의 형식으로 실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책으로, 고려말 원나라 불교와의 교섭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써 귀중본이다.

## □ 선종영가집

- |                    |                      |
|--------------------|----------------------|
|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11. 19 |
| ◎ 지정번호 : 제 35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이 책은 당나라 현각(玄覺)이 법문을 찬술하고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석한 책으로 상하 2권1책의 목판본이다.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542년(중종37)에 간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525년(중종20)의 판본을 뒤에 인쇄한 후대본이다.

영가(永嘉)는 온주(溫州)의 영가현각대사(永嘉玄覺大師)를 지칭하는데, 이는 그가 영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나라 예종 때인 712년에 입적한 후 무상대사(無相大師)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증도가(證道家)> 일수를 지었고 또한 <영가집> 이 세간에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선종의 요결로서 우리 나라 선림에서 많이 이용했던 책이다. 지금까

지 전해지는 책 중 고려 우왕 7년(1381)판본의 한문본이 보물 제 641호로 지정되어 있고, 세조10년(1464)의 언해본이 보물 제 744호로 지정되어 있다.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책은 앞의 두 책보다는 후대의 것이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간행본 현황을 고찰하는데 소중한 자료이다.

###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지정일자 : 1999. 11. 19
◎ 지정번호 : 제 36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이 책은 한없이 크고 깊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 경전으로 1권의 목판본이다. 간기에 의하면 1562년(명종 17)안동 광흥사(廣興寺)에서 여러 경전과 함께 간행되었다.

이 경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열가지 큰 은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여 10개월이 될 때까지를 1개월 단위로 나누어 고찰하는 등 매우 과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효경(孝經)》이 효도를 강조한 것인데 비하여 이 경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은 중국을 비롯해 우리 나라와 일본 등에 널리 보급되었고, 나라마다 많은 유통본을 남기고 있다. 우리 나라 유통본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으며, 조선 초기부터 삽화를 곁들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고, 조선중기 이후에는 언해본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도 삽화를 곁들인 조선전기의 판본으로서 조선전기 불경간행 역사, 국어사 및 판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 □ 육조대사법보단경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지정일자 : 1999. 11. 19
◎ 지정번호 : 제 37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이 책은 선종(선종)의 6대조였던 혜능(慧能)의 수도 과정과 문인들을 위한 설법을 담고 있는 자서전적 일대기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사어록(祖師語錄)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해박한 사상과 간결한 문체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는 경전과 같은 존송을 받아오고 있는 1책의 목판본이다. 간기에 의

하면 1569(선조2) 평안도 상원 해탈사(解脫寺)에서 개판하고 다시 심곡사(深谷寺)로 옮겨 간행하였는데, 사상적으로 뿐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첫째, 혜능이 부처님 이래 전수되어온 심인(心印)의 계승자로서 이 때부터 선사들의 법맥을 강조하는 학풍이 생겼다는 점, 둘째는 중국불교의 특성을 대변하는 학설로 견성(見性)이 수도의 목적이며, 따라서 자성을 떠난 부처는 없다는 교설이라는 점, 셋째는 선종에서 수행방법의 요체는 돈오(頓悟)의 수행인데, 그 근원이 바로 이 책이라는 점이다.

동일한 판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간행된 한 문본으로 고본(古本)에 해당되는 귀중한 사료이다.

### ☐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지정일자 : 1999. 11. 19

◎ 지정번호 : 제 38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이 책은 《금강경》의 내용을 삽화 형식으로 해설한 책으로 1책의 목판본이다. 변상도는 지옥의 모습을 보여 악한 짓을 그치게 하거나 정토(淨土)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토나 지옥의 모습 등을 그린 그림으로, 진상(眞相)을 변형시켜 그렸기 때문에 변상(變相)이라고 한다.

변상도는 경전 속에 삽도 형식으로 배치되거나 책머리에 배치되는 두 가지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삽도 형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책머리에만 간편한 변상도를 붙여 두는 것이 일반화적인 경향이였다. 삽도형식의 변상도 중 대표적인 것은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363년(공민왕12)에 간행된 남원 개판본이다. 그러나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책은 상단에는 그림, 하단에는 경문(經文)의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 간행되었지만 삽도 형식을 취하고 있어 조선초기까지 삽도형식의 《금강경》이 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전체 77종의 그림이 실려 있으며, 동일한 판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강경》의 이해는 물론 조선초기의 회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 ☐ 불조역대통재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지정일자 : 1999. 11. 19

◎ 지정번호 : 제 39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불조역대통재(약칭 불조통재)는 원나라의 염상(念常)이 석가여래의 탄생에서 1334년까지의 고승대덕(高僧大德)의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책이다. 모두 22권 10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인데, 범어사에는 제2책(권2~5)이 빠진 채 모두 9책을 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472년(성종3)인수대비가 승하한 세조와 예종의 명복과 정희대왕 대비.성종(成宗).공혜왕후의 장수를 빌기 위해 목판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사찰을 통해 《법화경》 등 29종의 불교경전을 인출할 때 간행된 것이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져 있다.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책은 만력(萬曆) 4년인 1576년(선조9)에 전라도의 사자산(獅子山)쌍봉사(雙峰寺)에서 중.개간(重開刊)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1430(세종12) 대자은사(大慈恩師)수좌(首座)인 광의(廣義)에 의해 중간되어 유통되었던 목판을 다시 중간한 것이어서, 조선초기 목판 인쇄와 왕실의 불교신앙 양상을 알 수 있는 등 판본의 사료적 가치가 큰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 ☐ 몽산화상범어약록

◎ 종 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지정일자 : 1999. 11. 19

◎ 지정번호 : 제 40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이책은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德異)의 범어를 요약하여 수록한 1책의 목판본으로,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된 범어 가운데 하나이다. 간기에 의하면 1579년(선조12) 여름에 지리산 신흥사(神興寺)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몽산화상범어약록》은 현재 언해본 3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국대학교 소장본이 보물 제767호, 이겸로(李謙魯) 소장본이 보물 제768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이 보물 제769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국대학교 소장본은 권말에 간기가 없어 간행연도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1467년경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겸로 소장본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은 동일한 판본으로 1472년 인수대비의 발원에 의하여 간경도감판에서 인출한 것으로 권말에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찍은 김수온(金守濶)의 인경발문(印經跋文)이 붙어 있으며, 권머리에 역해자 표시가 삭제된 것 외에는 내용이 동국대학교 소장본과 같다. 그러나 범어사에 소장된 이 책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문본으로서, 언해본들과 비교해 볼 때 책의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사료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 법화경

- |                   |                       |
|-------------------|-----------------------|
| ◎ 종류 : (시지정)유형문화재 | ◎ 지정일자 : 1999. 11. 19 |
| ◎ 지정번호 : 제 41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천태종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화경》은 우리나라에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법화경》이 언제부터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 고승들의 주석서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공덕을 쌓기 위해 많은 필사와 간행이 이루어졌고, 불교가 수난을 당하던 조선시대에도 계속 간행되었다. 1399년 정천익(정천익)의 시주로 간행된 것이 현재까지 전해내려 오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의 판본이고, 이후로 간기가 뚜렷한 것만도 약 12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남아있다. 간기를 알 수 있는 것만도 1527(중종22)에서 1711년(숙종27)에 이르기까지 77책이나 되며, 특히 1647년, 1688년, 1711년의 간행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법화경》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서지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 □ 황실축원 장엄수

- |                  |                     |
|------------------|---------------------|
| ◎ 종류 : (시지정)민속자료 | ◎ 지정일자 : 1999. 9. 3 |
| ◎ 지정번호 : 제 1 호   |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

범어사 소장 장엄수는 1902년(광무6) 10월 범어사의 산내 암자인 계명암(鷄鳴庵)에서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성을 위한 국제(國際)를 거행할 때 황실에서 범어사의 하사한 한 쌍의 장엄수이다.

남색과 붉은색 바탕의 공단에 금사와 명주실을 사용하여 평수,이음수,자리수,가름수 기법등으로 수를 놓은 한 쌍의 장엄수는 서원문을 제외하고는 기법, 문양,재질이 동일하다. 장엄수는 중앙에 세로로 금사를 사용하여 두 겹의 장방형 테를 두르고 중앙에는 금사로 수원문을 수 놓았고, 윗 부분에는 붉은 바탕에 녹색실로 연꽃잎 문양을, 아래 부분에는 녹색 바탕에 갖가지 색실로 연꽃 문양을 수 놓았다. 윗 부분 양쪽에는 복장의 의미로 향,옥고,경(經)등을 넣었던 다라니 주머니 한 쌍이 달려 있는데, 주머니는 다소 납은 상태이다. 다라니 주머니 바깥쪽으로는 역시 한 쌍의 매듭이 장식으로 달려 있는데, 매듭의 일부는 뒤에 교체하였다.

따라서 이 장엄수의 제작 연대는 두 사람이 추존된 이후 범어사 계명암에서 국제를 지낸 1899~190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궁중자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 순치8년명 청동은입사향완

◎ 종 류 : (시지정)문화재자료

◎ 지정일자 : 1999. 9. 3

◎ 지정번호 : 제 3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향완은 고려시대에 많이 제작되어진 향로의 일종으로, 예불을 드릴 때 향을 피우기 위해 청동으로 만들어 지는데, 나팔모양으로 넓어진 받침 위에 입의 가장자리가 넓게 수평으로 벌어진 밥그릇처럼 생긴 것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특히 고려시대 향완들은 몸체 표면에 은입사(은입사)한 것이 많아 한국공예 사상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범어사에 소장된 이 향완 역시 고려시대 향완의 일반형태를 따르면서 은입사된 조선시대 향완인데, 높이와 입 지름의 비율이 거의 같아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준다. 넓게 벌어진 입 끝에 둥근 테를 두르고 그 표면에는 일정하지 않는 곡선들이 간략히 은입사되어 있다. 몸체 윗면과 아래 면에도 입과 같이 예리하지 못한 곡선들로 듬성듬성 은입사되어 있으나, 중간부분8군데에는 동심원(동심원)인 두 줄의 원을 돌려 안쪽에는 범자(범자)를, 바깥쪽에는 톱날무늬와 X형의 무늬를 새겨 넣는 등 독특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명문에 의해 이 향완은 1651년(효종2)에 경상북도 청도 화왕산 적천사(적천사)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당시 조선시대 향완 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 도광명 유제양이부대발

◎ 종 류 : (시지정)문화재 자료

◎ 지정일자 : 1999. 9. 3

◎ 지정번호 : 제 4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사찰에서 바루 공양을 할 때 밥통으로 사용하던 식기(식기)의 일종으로, 몸체 좌우 대칭되는 곳에 2개의 손잡이 고리가 달려 있으며, 깊이가 17.6cm, 너비가 40.5cm인 대형 발우(발우)이다. 그릇의 입 가장자리를 2cm 가량 벌린 몸체와 3.3cm높이의 받침은 한 몸으로 제작되어져 있지만 몸체 바깥면 두 곳을 약간 튀어나오게 처리하여 3등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교하지 못한 손잡이

장식과 함께 고르지 못한 몸체표면 처리 등에서 조형미가 조금 떨어지는 작품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받침의 바깥면에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16여자 명문이 점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대형 받침이 순조 때인 도광(도광)2년(1822) 혹은(1825)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공예품 중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의식용 범구(범구)로서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찰에서 행해진 바루공양 의식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 동치원년명 범어사금고

◎ 종류 : (시지정) 문화재 자료	◎ 지정일자 : 1999. 9. 3
◎ 지정번호 : 제 5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금고는 청동으로 만든 쇠북으로 금구(禁口) 또는 반자(飯子)등으로 불리는 절에서 사용된 의식범구(儀式法具)이다. 범종이 주로 아침, 저녁의 예불이나 중요한 의식범회 때 사용된 것과는 달리 금고는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불러 모으는 등 범종보다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범어사 대웅전 우측 문 앞에 걸려 있는 금고는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조성된 일반적인 금고양식과 같은 양식을 지녔으나, 규모 면에서 거의 2배 내지 3배에 이르는 대형 금고이다.

고려시대에는 뒷면이 넓게 뚫린 금고를 반자(盤子, 半子, 飯子)등으로 표기하고, 뒷면이 거의 막힐 듯 작게 뚫린 공명구(共鳴口)가 있거나 앞.뒷면이 모두 막혀있고 측면에 장방형의 공명구를 뚫은 형태를 금고(金鼓, 禁鼓)나 금구(禁口)로 표기한 것과는 달리 조선후기에 제작된 범어사 금고는 특이하게 ‘금구(金口)’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범어사 금고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보기 드문 대형 금고인 동시에 조성연대, 명칭 및 당시의 금고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 선방축성패

◎ 종류 : (시지정) 문화재 자료	◎ 지정일자 : 1999. 9.3
◎ 지정번호 : 제 6 호	◎ 소재지 : 청룡동 (범어사)

공단에 명주실을 사용하여 평수, 이음수, 자리수, 가름수, 금박수 기법으로 수를 놓은 이 축성패는 붉은색 바탕의 외곽에 장방형의 금색 테두리를 두르고, 가운데는 금사로 『남무』라는 서원문을 수로 새겼으며, 테두리 바깥은 남

색으로 되어 있다. 축성패의 문양을 살펴보면, 중앙의 서원문 양쪽에 오방색(오방색) 색실로 불꽃 무늬를 수 놓았으며, 윗부분에는 녹색실과 금색실로 연꽃잎 문양을 수 놓았고, 아랫부분에는 오방색 색실로 파도 무늬위에 연꽃모양과 좌대를 수 놓았다.

사찰에서 선방(선방)에 모셔 놓고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릴 때 기원하던 축성패(축성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제작 연대는 민속자료로 지정된 장엄수와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앞의 장엄수보다는 솜씨가 다소 떨어지는 작품이지만, 장엄수와 함께 당시 궁중자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Ⅲ. 지 명 유 래

### □ 서동(書洞)

현재 서4동 9, 18, 19, 20통 일부지역에 옛 셋골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이 서동의 중심 마을이었다. 셋골을 큰마실이라 하였고, 안골(서3동)을 작은 마실이라 하였다.

안골은 서3동 11통 지역과 9통 일부에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 영조 당시 셋골과 함께 동래군 동면 서동(書洞)에 속해 있다가 뒤에 동면(東面)이 동상면(東上面)과 동하면(東下面)으로 분면되어 동상면에 속하였으나, 일제시대인 1914년 동상면이 동래읍에 편입되면서 서리(書里)로 개칭되었다.

그후 1942. 10. 1 동래읍이 부산부에 편입되자 행정상으로는 부산부 동래출장소에 소속되었고, 1957년 부산시 동래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1959년 서동, 금사동, 회동동을 병합하여 동상동이라 개칭하였다.

1975년 동상동은 동상1·2·3동으로 분동되고, 1978. 8. 8 동상2동에서 동상4동이 분동되어 4개동이 되었다. 동상동이란 동명이 영도 동삼동과 발음이 비슷하여 1982년 서동으로 개칭한 후 오늘에 이른다.

### □ 금사동(錦絲洞)· 회동동(回東洞)

금사동은 조선시대 동래부 동면 지역인데 이때까지 금사(錦絲)라는 행정동명은 없었고, 일제시대인 1914년에 금천(錦川), 사천(絲川)마을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때 회천(回川)마을과 동대(東臺)마을을 합해 회동리(回東里)라 했고, 금천(錦川)마을 일부와 셋골을 합해 서리(書里)라 했다.

1942년 서리(書里), 금사리(錦絲里), 회동리(回東里)등 3개리를 병합하여 서동(書洞)이라 개칭하게 되었다.

1968년 2월 영주동 고지대 판자촌 철거민 정책 이주지로 선정되어 집단이주가 시작되었고, 1974년 10월 14일 이곳이 준공업지구로 승인된 후 많은 기업체가 들어섰다.

당시 금사동은 동상3동에 속해 있다가 1985년 12월 1일 인구증가에 따라

서3동에서 분동할 때 옛동명 금사리(錦絲里)를 따서 금사동(錦絲洞)이 되었다.

- 錦川마을 — 현11통 지역으로, 옛날 이 곳에 누에를 많이 쳤다하여 비단 금, 사천강변에 위치하였다하여 천, 금천마을이라 이름 붙여짐.
- 絲川마을 — 사천과 실내는 같은 뜻이며, 실내라고 불리어왔던 자연부락으로 조선시대에 수영강을 사천이라 불렀던 것에 유래
- 回川마을 — 현25~28통 지역으로 이 마을 앞을 흐르는 사천(수영강)이 여기서 돌아서 흘러내리는데서 유래
- 東臺마을 — 현29통 지역으로 사천 동편에 위치한 절경지라 동대라 하였는데 옛 동래부의 7대 즉 해운대, 태종대, 물운대, 오륜대, 신선대, 자성대, 동대와 더불어 명승지에 속함

## □ 오륜동(五倫洞)

오륜동의 지명 유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동래부지 고적조(東萊府誌 古蹟條)에 오륜대는 동래의 동쪽 20리 사천(絲川)이 있는데 대(臺)에는 4,5보(步) 가량으로 시내(溪)에 임하고 암석이 기고(奇古)하여 구경할 만하다. 속전(俗傳)에 사람이 있어 대변(臺邊)에 사는데 오륜(五倫)을 갖추고 있어 이로써 이름하였다.

조선조 말에 편찬된 동래읍지 고적조(東來邑誌 古蹟條)에는 다섯 老人이 지팡이를 쫓고 경승지(景勝地)인 이곳에서 주자학을 숭상하는 처사(處士)들이 은둔하여 지내면서 붙인 이름으로 짐작된다

## □ 부곡동(釜谷洞)

조선 시대부터 일제 중기까지 동래부(군) 북면 부곡리로 칭하여 오다가 1936년 부산부 부곡정(釜谷町), 1942년 부산부 동래 출장소 부곡정(釜谷町)이라 칭하여 오다가, 광복 후 1957년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이라 개칭하였다.

부곡(釜谷)이란 명칭은 인근 자연 마을인 가마실, 공수물(錦陽), 기찰(機察), 오시계(烏峴)마을 중□□가마실□□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 하며 가마실의

명칭은 부곡동에서 서동으로 넘어가는 산의 모양이 가마(釜)와 같이 생긴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곡이란 지명의 연혁은 어느 동보다 오래되나 확실한 유래는 알 길이 없다.

- 공수물(錦陽)의 유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으나, “金井區誌”에서는 고려시대 사관들의 숙박, 접대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分給하던 땅을 공수전(公須田)이라 하였는데, 이에 연유된 지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선말 부곡리에서 분리되어 錦陽里란 행정리동으로 독립되기도 하였다.
- 한편 이곳 토박이의 얘기로는 옛날 權氏가 많이 살았고, 구월산 자락에 물이 좋아 공수물이라고 불려졌다는 이야기와 權氏와 宋氏만 살았다하여 權宋마을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

## □ 장전동(長箭洞)

조선시대 동래부(군) 북면 장전리라 칭하여 왔고 대한 제국시대에 장전리(長箭里), 소정리(蘇亭里)로 나뉘었다가 광복 후 1952. 2. 1부로 장전(上里)과 소정(下里)을 합하여 장전동(長箭洞)이라 하였다.

장전이란 긴 화살이란 뜻으로 금정산 죽전부락(竹田部落)과 같이 화살대를 만드는 재료가 많았으며 조선시대의 군기(軍器)의 하나인 편전(片箭 긴화살), 단전(短箭 짧은화살)을 만드는 곳이거나 그 재료를 공급하던 곳이라 보아진다.

소정(蘇亭)부락은 소하정(蘇蝦亭)의 준말인데 동래부의 15리 금정산 기슭에 있는 정자로 소하(蘇蝦)라는 신선이 항상 흰사슴을 타고 금구선인(金龜仙人)과 노닐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라 소정(蘇亭)이란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하여 진다.

## □ 선 동(仙洞)

선동(仙洞)은 조선시대부터 선리(仙里)로 호칭하고 동래군 북면에 소속되었다가, 1963년 부산직할시 승격때 부산시로 편입되어 북면 출장소의 관할

하에 있다가 1966년 선리(仙里)를 선동(仙洞)으로 개칭하였다.

선동(仙洞)이란 지명은 오륜대와 인접하여 신선(神仙)이 노닐었다는 데서 신선(神仙)이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나 분명하지는 않다.

한편, 두구동 임석부락(林石部落)과 같이 선돌(立石)이 있어 선돌을 한자 음으로 표기하면서 동리이름을 신선선(仙)자를 써서 지어진 것이라는 설도 있다.

## □ 두구동(杜邱洞)

조선시대에는 동래군 북면 두구리(杜邱里)로 칭하였는데 대한제국시대 건양계획때 임석(林石), 수내(數內), 대두(大豆), 중리(中里), 죽전(竹田), 조리(造里), 송정(送亭)등 7개 마을을 병합하여 두구동(杜邱洞)이라 동명을 개칭하고 동래군 북면에 편입하였다.

이때 두구리(豆口里)의 명칭이 동명으로 좋지 않다 하여 두구리(杜邱里)로 바꾸었다고 한다.

1963년 1월 1일부로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때 동래군 북면일대가 부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산시 북면 출장소 관할로 바뀌었다.

1966년 杜邱里를 杜邱洞으로 개칭하게 되고 1975년 북면 출장소가 폐지되고 동래구로 편입되었다가, 1988년 1월 1일부로 금정구가 신설됨에 따라 금정구에 편입되었다.

## □ 노포동(老圃洞)

조선시대 동래군 북면 작장리(鵲掌里), 노포리(老圃里)의 2개 행정리동(行政里洞)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작장(鵲掌), 대룡(大龍), 녹동(鹿洞)을 병합하여 노포리(老圃里)라하여 동래군 북면에 소속되었다가, 1963년 부산직할시 북면 출장소에 편입, 1966년 리제폐지에 따라 노포동(老圃洞)이라 개칭하였다. 4개의 자연 부락 중 작장부락(鵲掌部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노포동(老圃洞)의 지명은 농사를 잘 짓는 농부 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늙은 농부를 뜻하며, 즉 농사가 잘 되는 마을, 다른 곳에 비해 농토가 풍

부한 마을이라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또 어떤 이는 노포(老圃)는 글자 뜻대로 오래된 채밭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 □ 청룡동(靑龍洞)

청룡동(靑龍洞)은 청룡(靑龍), 상마(上麻), 하마(下麻), 신리(新里), 용성(龍城)등 5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동명이 나타나지 않고, 1914년 일제 병합 후 청룡동(靑龍洞)이라 하여 동래군 북면에 편입된 동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청룡(靑龍)이란 동명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청룡동(靑龍洞)은 범어사의 동편부락이란 뜻으로 지어진 동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오래 살아온 노인 분들은 계명봉(鷄鳴峰)이 계룡(鷄龍)의 형상으로 산의 중턱에 계명암(鷄鳴庵)이 있고, 서쪽을 마주 대하여 미륵암이 있고, 동편에는 龍의 머리가 있다하여 청룡동(靑龍洞)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미리암의 미리는 우리말로 龍을 뜻한다며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신리(新里)에는 팔송정(八松亭)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 소나무 여덟 주가 있어 좋은 정자를 이루고 있었다 한다. 또한 상마, 하마마을은 청룡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 곳에 삼(麻)을 많이 심었다고 한다. 용성마을은 지명 이름은 분명치 않으나 청룡과 관련이 있고 청룡마을 주민과 함께 이 일대 농경지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현재는 이 일대는 개발제한 구역 및 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 남산동(南山洞)

남산동(南山洞)이란 동명은 이곳이 옛날 범어사의 사전(寺田)을 소작하는 농민들이 많아 범어사에서 볼 때 남(南)쪽 산(山)등성이라 하여 남산(南山)이라 부족 이름을 지었다고 전하여진다. 남산동은 남산(南山), 남중(南中), 신암(新岩)의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동으로, 신암마을을 이 지방 사람들은 서근덤이라 부르는데 석돌이 많아서 붙여졌으며, 남중마을은 남산마을과 신암마을

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 구서동(久瑞洞)

구서동은 조선시대에는 동래군 북면 구세리(仇世里)라 불리었으며, 동래부와의 거리 12리가 된다고 동래부지(東來府誌)에 기록되어있다. 그 후 대한제국시대 행정 21동등 구서리(久瑞里)와 두실리(斗實里)의 2개 리로 편성하였다.

1914년에 금단(琴端)마을과 두실(斗實)마을, 구서(久瑞)마을을 병합하여 구서리(久瑞里)라 개칭하고 동래군 북면에 소속되었다가, 1963년 부산시 동래구 북면 출장소에 편입되었다.

구서동(久瑞洞)의 지명유래는 구세리(仇世里)의 구리(仇里)는 구세동거(九世同居)에서 따온 말로, 중국 당나라의 장공예(張公藝)는 9대가 한집에서 살았다는 고사에서 집안이 화목한 것을 이르는데, 이곳이 바로 그러한 고장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여기에서 동래부지(東來府誌)의 효자효녀조(孝子孝女條)에 나오는 구주성(九周星)의 성씨(姓氏)를 따라 구세(仇世)로 되었다 한다.

또한 구세동(仇世洞)은 곳을 잘하는 동네라는 뜻에서 곳판, 곳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금정산의 번우함(飜雨岩)이 이 동네의 위에 있는 기우소(祈雨所)로 지성을 드리는 장소였다. 여기에서 곳을 자주 벌여 동네 이름이 구세(仇世)가 되었으나, 훗날 뜻이 좋은 한자음으로 구서동(久瑞洞)으로 바꾸었다 한다.

### □ 금성동(金城洞)

금성동(金城洞)은 조선시대 중기까지 동래부 북면 산성리라 칭하였는데, 조선말기 고종33년(1896년) 경남 양산군 좌이면(左耳面) 금성리(金城里)라 칭하게 되었다.

그 후 1904년 동래군 서면(西面)에 속하였다. 1906년 동래군 좌이면(左耳面)에 편입, 1918년 동래군 구포면(龜浦面)에 속하게 되었다가, 1963. 1. 1부로 부산직할시 승격될 때 부산시 부산진구 관할에 편입, 1978. 2. 15부로 동

래구에 소속되었다가, 1988. 1. 1부로 금정구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른다.

금성동(金城洞)이란 동명은 금정산성(金井山城)안의 동리(洞里)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적 제215호인 우리나라 최대의 이 산성은 조선시대 숙종 29년(1703년)에 축성되었다 하는데, 피난겸 항전의 보루로 축성되어 군용 물자의 저장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IV. 우리 고장 명소

### 金井山(금정산)

**위치** : 동으로는 부산의 금정구, 북으로는 경남 양산시, 남으로는 부산의 동래구, 서로는 북구와 접하는 넓은 지역에 위치

금정산은 해발 801.5m의 주봉인 고당봉을 중심으로 북으로 장군봉(727m)과 남으로 상계봉(638m)을 거쳐 성지곡 뒷산인 백양산(642m)까지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원효봉, 의상봉, 미륵봉, 대륙봉, 파류봉, 동제봉 등의 준봉을 일구어 놓고 있다. 또한 약수터가 14군데가 있어 등산객의 목을 축여주고 일부 구민의 식수로 쓰여지고 있다. 그 밖에 2,300여 종류의 나무와 날짐승, 길짐승을 포함 6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가까이 동래온천, 금강공원, 범어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금정산성 등 명소를 두루 지니고 있다.

### 梵魚寺(범어사)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신라 제30대 문무왕 18년(687년)에 의상대사가 세웠으며, 창건 당시에는 문무대왕의 명으로 대규모의 불사를 하여 요사 360방, 토지가 360결, 소속된 노비가 100여호로서 국가의 대 명찰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만나 모두 소실되어 거의 폐허가 되었으며 이에 광해군 때 다시 중건하였으나 미약하며, 현재의 건물은 대부분 조선 시대 이후의 것들이다. 이 곳 범어사는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영남 3대 사찰로 유명하며 이 곳 경내에는 천연기념물 제176호 등나무 군생지, 보물 제250호 범어사 삼층석탑, 보물 제434호 대웅전과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 2호 범어사 일주문, 제15호 당간지주, 제16호 범어사석등 등 다양한 문화재가 소재해 있으며, 또한 금정산을 끼고 있어 삼기팔경이라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다.

산내에는 100여개가 넘는 말사와 청련암, 내원암, 계명암, 대성암, 금강암, 안

양암, 미륵암, 원효암, 사자암, 만성암, 지장암 등 11개의 암자가 있다.

### 回東 水源池(회동 수원지)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선동 등 5개동 3개면에 걸쳐 위치

1946~1967년에 완공되었으며, 총 넓이는 2.17km<sup>2</sup> 저수량은 1,850톤이며 부산 시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요, 휴양처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천연 경승지로 조선 시대 이곳에서 주자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숨어지내면서 이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오륜대라고 불렀다. 지금은 물속에 잠겨 있으나 이 지방의 오랜 역사와 함께 우수한 문화유물이 출토된 오륜대 고분군이 있다.

### 韓國殉教者 記念館(한국순교자 기념관)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산1-4번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은 조선조 흥선 대원군의 병인 천주교 박해 때 1868년 음력 8월 4일 수영장대에서 참형을 받고 순교한 요한 이정식씨와 그의 동생 이삼근, 아들 이관복, 며느리 박소사 등 가족과 그 외 야재현, 차장득, 이월주, 옥소사 등 천주교 신자 8명의 순교자 유해가 안장된 곳이다.

천주교우 박진순 여사를 비롯한 순교자 헌양에 앞장 선 많은 신자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1982년 9월에 기념관을 지어, 그 동안 수집된 순교자들의 유품과 박해 시대의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 밖에 이 곳에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비롯하여 순교자 성당, 수녀원, 성모당, 대건당, 하상관 등이 있다.

### 釜山大 博物館(부산대 박물관)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내

1956년 3월 지금의 박물관 별관 건물이 준공되어 1964년 5월에 개관하였다. 이후 1994년 3월 구음악관을 개조하여 전시실 1,2층을 개관 현재까지 이른다.

전시유물로는 1층(종합전시실) 총656점, 2층(기획전시실-가야문화전시실) 총 378점 등 총 1034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곳은 시대별로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으며,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유물 중 동래 복천동에서 수집된 유물들이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1층 종합전시실과 2층 기획전시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1층은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유물을 통하여 통시대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2층은 직접 조사한 가야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가야 문화를 전반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부분마다 주제를 정해 체계적으로 전시하였다. 그밖에도 초청강연회와 유적탐방, 비디오 상연회, 도서 및 영상자료 대여를 하고 있다.

## 國淸寺(국청사)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397번지

신라 시대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이후 중수를 거듭해왔으며, 숙종 29년(1703년)에 금정산성 중성을 쌓은 후 적을 막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로 국청사라 칭하였다. 이름의 뜻도 ‘청청한 마음으로 수행과도 같이 국난을 극복한다는 데 앞장서다’ 혹은 ‘나라가 외적의 더러운 발길에 짓밟힘을 막고 깨끗한 국토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곳은 예전 금정산성을 방어하던 호국 사찰로 실제로 이 곳에는 당시 승병장이 사용한 ‘금정산성 승장인’이라는 철제인이 보관되어 있어, 이것을 보아 승군작대의 사령부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곳 대웅전 안에는 본존불인 석가여래불을 비롯하여 좌협시인 문수보살과 우협시인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다.

## 淨水庵(정수암)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5번지

정수암은 조선중기(1700년대) 진목대사가 창건하였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지 못한다. 현재는 범어사 11개 암자에 속해 있으며, 전통사찰 중 하나이다. 총면적은 1,455㎡이며, 법당 2동과 요사 1동이 소재하고 있다.

## 彌勒庵(미륵암)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산1-1번지

미륵암은 통일신라시대(10세기 말) 의상대사가 범어사를 창건한 해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이다. 이곳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열화전 뒤편의 거대한 바위가 스님이 좌선하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좌선바위라 불리우고 있다. 이 바위는 여러개의 바위들이 모자이크한 듯이 어울려 있는데, 해가 지고 난 뒤 바위와 바위 사이의 금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전체로 보면 그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좌선바위 뒤편에는 미륵불과 닮은 미륵불을 향해 좌선을 하고 있는 형상의 절묘한 터에 원효는 기도도량을 세운 것이다. 미륵암이란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鷄鳴 烽燧臺(계명 봉수대)

**위치** : 범어사에서 약 1.5km 가파른 동북쪽 산 허리를 따라 고찰 계명암을 거쳐 삼각 산봉우리에 위치

지난날 부산에는 7개의 봉수대가 있었는데, 금정산에는 유일하게 이 곳에만 설치하였다.

봉수는 옛날의 원시적인 군사통신 수단으로 높은 산정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외적 침입 등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봉수를 올리기 위해 설치한 대가 곧 봉수대인 것이다. 그런데, 계명봉은 그 정상 높이도 642m이며, 더구나 봉수대 자리는 계명봉의 몇 개 연봉 가운데 가장 낮은 동쪽 끝의 봉우리에 있어 봉수대는 사방으로 전망이 터어 눈에 잘 띄어야 하므로 그 위치 선정에 대해 좀 의아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 봉우리는 해발 고도와는 상관없이 동서남북이 시원하게 열려져 있다. 남쪽 정면으로 황령산이 가깝게 보이며, 원적산 또한 북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선명하게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사방으로 시계가 띄어져 있어 횃불과 연기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봉수대는 연변 봉수(적의 내침을 알리는 봉수)를 서울로 연결하는 내지

봉수대 양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에는 석축의 소정보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약간의 석축을 개축하여 불을 피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동그란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 三奇 八景(삼기 팔경)

**三奇** - 금정산 내 독특하고 이름있는 세 가지 암석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원효석대, 자웅석계, 암상금정이 있다.

- 원효석대(元曉石臺) - 원효암 뒤편 암석을 말하며 매우 기묘하고 아름다우며 원효대사가 수도를 했다고 전해진다.
- 자웅석계(雌雄石溪) - 암탕과 수탕의 모습을 한 암석을 말하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 암상금정(岩上金井) - 바위 위의 금빛 나는 우물을 말하며 창건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금정산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바위를 뜻한다.

**八景** - 범어사, 금정산 주변의 풍치림과 돌과 물, 그리고 청량한 바람 등과 같은 자연이 일구어 내는 풍경 8가지를 가르켜 부르는 말이다.

- 어산노송(魚山老松) - 범어사 경내에 들어서면 어산교 주변의 숲속 길 양쪽의 울창한 소나무 숲들이 아름다운 풍치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볼 수 있는 데 이를 두고 어산노송이라 부른다.
- 계명추월(鷄鳴秋月) - 범어사 동편 산록에 보면 계명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는 데, 이 곳은 가을이면 금정산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곳으로, 이를 일컬어 계명추월이라고 부르고 있다.
- 청련야우(淸漣夜雨) - 범어사 본당 오른쪽 뒤편에는 청련암이 자리잡고 있으며, 밤중에 이곳 객사에서 대숲으로 내리는 빗소리의 운치가 독특하고 그 화음이 아름답다 하여 이를 청련야우라고 부르고 있다.
- 대성은수(大聖隱水) - 그리고 범어사 본당을 기준으로 왼편에 계곡 바위위에 세워진 대성암을 볼 수 있는 데, 그 밑으로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와 계곡, 바위 등이 어울어져 지하수로 흐르는 물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고 하여 그것을 대성은수라고 부르고 있다.

- 내원모종(內院暮鐘) - 청련암 뒷편에는 내원암이 자리잡고 있는 데, 이 곳은 범어사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정적이 흐르는 곳으로 이 곳에서 큰절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신묘한 운치를 자아낸다고 하여 이를 내원모종이라 부르고 있다.
- 금강만풍(金剛晚楓) - 그 곳 주변 계곡을 따라 500m를 지나면 금강암이란 암자가 나타나는 데 그 곳의 주변의 풍치림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경관이 하나의 장관을 이룬다 하여 이를 금강만풍이라 부르고 있다.
- 의상망해(義湘望海) - 대성암에서 11km 떨어진 원효암 동쪽 능선에 돌출해 있는 곳에 의상대사가 동해를 보며 좌선한 곳인 의상대가 있다. 이 곳은 동으로는 계명봉, 밑으로는 범어사가, 멀리 회동 수원지가 둘러서 있으며 서쪽으로는 원효봉과 원효석대가 자리잡고 있으며, 북으로는 고당봉이 자리잡고 있어 최고의 전망대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경치를 보고, 의상망해라고 부르고 있다.
- 고당귀운(姑堂歸雲) - 금정산 정상인 고당봉은 가장 높은 곳인 만큼 고당봉에 흰 구름이 흘러가다 걸려있는 그 운치가 압권이라 하여 이를 고당귀운이라 일컫는다.

## V. 2006년 주요구정일지

월 일	행사내용	시간	비고
1월			
1.2	○시무식	09:00	1층대강당
1.6	○권역별 동장 정례보고회	11:00	3층 접견실
1.10	○노조지부 임원진 신년인사	10:50	“
1.11	○지방세관련 위원회 위촉장 수여	11:00	“
1.13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11:00	1층대강당
1.16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00	본회의장
1.17	○나라사랑 마당 개소식 개최	11:00	만남의광장內
1.24	○설맞이 환경정비	10:00	구전역
1.26	○소나무 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 발대식	14:00	범어사 경외주차장
2월			
2.1	○직원정례조례	09:00	대강당
2.3	○임용장 교부	10:00	3층 접견실
2.8	○금정산성 금정진 관아터 문화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14:00	2층소회의실
2.13	○금정구새마을지회 정기총회	11:00	자체
2.14	○금정구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심의위원회	10:00	2층 소회의실
2.15	○2005. 주요업무 종합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위원회 회의	10:30	“
2.16	○선동 신천운동장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용역 최종보고회	14:00	“
2.17	○제2회 금정구청어린이집 졸업식	17:00	어린이집
2.20	○구서주공재건축아파트 주변도로 개통식	10:30	금샘로
2.20	○시장 방문 구민과의 대화	14:00	7층대회의실
2.21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개회)	11:00	본회의장
2.21	○금정구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창립총회	17:00	3층 영상회의실
2.26	○금정구경로회관 개관현판식	10:00	금정구 경로회관
2.27~3.10	○구민과의 대화	10:00	각 동
3월			
3.8	○구청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07:00	1층 대강당
3.13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0:00	2층 회의실

월 일	행사내용	시간	비고
3.14	○ 금정구 안전관리 위원회	14:00	7층 대회의실
3.15	○ 북경시 창평구 경제교류단 내방	17:00	3층 접견실
3.16	○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15:30	2층 소회의실
3.16	○ 금정발전협의회 회의	17:00	3층 영상회의실
3.20	○ 기관장협의회 회의	12:00	자체
3.21	○ 안전한 스쿨존만들기 봄조성을 위한 캠페인	07:30	화목아파트앞
3.24	○ 북경시 창평구 교류예술단 내방	17:00	3층 영상회의실
3.27	○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00	본회의장
3.28	○ 윤산구민숲 조성 타당성 용역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15:00	7층 대회의실
3.30	○ 세외수입체납정리 보고회	10:00	2층 소회의실
	4월		
4.3	○ 직원정례 조례	09:00	1층 대강당
4.4	○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11:00	3층 영상회의실
4.5	○ 「제6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10:30	윤산체육공원
4.6	○ 노인 「시민 보람의 날」 행사	10:00	동별 지정장소
4.13	○ 금정구다목적실내체육관 명칭 공모 심사	14:00	부구청장실
4.14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14:00	1층 대강당
4.18	○ 웰빙실내 미니 정원 및 자활사업 사진전시회	10:00	구민홀
4.19	○ 제46주년 4.19혁명 기념행사	10:00	금정도서관 앞
4.20	○ 관학협력 및 반딧불이 보전협약 체결식	15:00	3층 영상회의실
4.21	○ 금샘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	17:00	7층 대회의실
4.24	○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00	본회의장
4.25~4.28	○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	11:00	대강당
	5월		
5.1	○ 직원정례 조례	09:00	대강당
5.3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14:00	1층 대강당
5.9	○ 금정산 및 윤산 공중화장실 점검	10:00	윤산
5.11	○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11:00	7층 대회의실
5.12	○ '06. 구정역점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15:00	2층소회의실
5.23	○ “부산대명물거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15:00	3층 영상회의실
5.24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18:00	4층 대회의실

월 일	행사내용	시간	비고
5.30	○개표장 설치 현장 점검	14:00	금사중학교
	6월		
6. 5	○물가안정 대책회의	16:00	부곡시장
6. 7	○정례조례	09:00	대강당
6. 8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11:00	성일교회
6. 9	○노인건강강좌	10:00	금정구 경로회관
6.12	○제1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1:00	의회 본회의장
6.13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14:00	삼일위원회실
6.16	○2006.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10:00	시청 12층 회의실
6.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5:00	7층 대회의실
6.16	○자활사업 참여자 체육대회	10:00	경륜공단
6.19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00	의회 본회의장
6.20	○계약직 의사 채용면접	15:00	2층 소회의실
6.22	○제2차 보육정책 위원회	14:00	12층 소회의실
6.27	○제11회 여성주간 및 금정구 여성한마음 대회	14:00	1층 대강당
6.29	○구청장 이임식	15:00	1층 대강당
	7월		
7.3	○구청장 취임식	10:00	1층 대강당
7.5	○언론사 방문 등	14:00	부산일보 등
7.6	○7월 정례조례	09:00	1층 대강당
7.6	○제5대 구의원 개원식	14:00	의회 본회의장
7.12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의	11:00	7층 대회의실
7.14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 회의	11:00	2층 소회의실
7.18	○제15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11:00	의회 본회의장
7.21	○제4대 금정구 지부 출범식 및 정기총회	17:00	1층 대강당
7.24	○기획전시 흑-맥 전	18:30	문화회관
7.26~8.2	○구청장 초청 구민과의 대화	10:00	각 동
7.28	○요산문학관 상량식	14:30	요산 생가
	8월		
8.3	○금강부광아파트 주민대표와의 대화	15:30	7층 대회의실
8.4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09:00	부산대 등
8.9	○청소년 영농봉사대 생태체험 농촌 일손돕기	08:00	보건소 앞
8.9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상임이사등 내방	14:00	3층 접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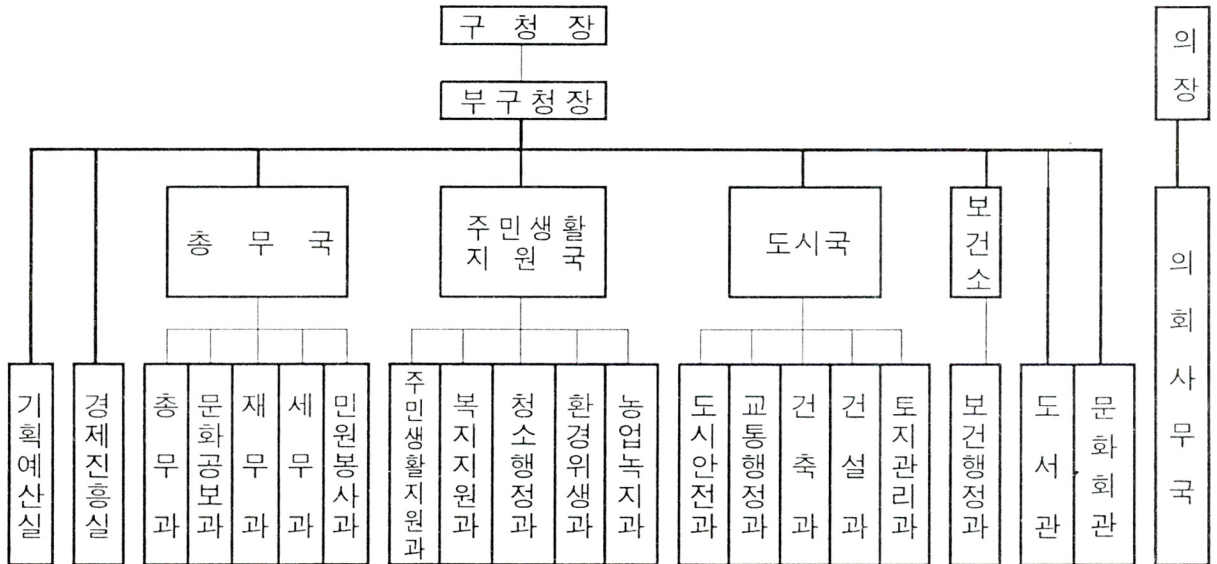
월 일	행사내용	시간	비고
8.14	○영어마을 관련 부산대 및 부산외대 관계자 내방	14:00	3층 접견실
8.16	○행정동우회 현판식	10:00	동우회 사무실
8.17	○을지연습 핵심과제 토의	13:30	7층 대회의실
8.18	○5급 승진자과정 교육대상자 입교신고	10:00	3층 접견실
8.21	○금정영어마을 KBS 인터뷰	15:00	3층 접견실
8.23	○을지연습 최종상황보고회	09:20	7층 대회의실
8.28	○금정나눔회 회장단 내방	16:00	3층 접견실
8.30	○그린시티 환경부 평가	09:00	2층 소회의실
9월			
9.4	○직원정례조례	09:00	1층 대강당
9.5	○부산의료원과 협력병원 체결식	11:30	3층 영상회의실
9.6	○적십자 봉사회 무료급식 현장방문 격려	11:30	서1동 경로당
9.7	○함께해요 희망한국 2006 순회강연회	15:00	1층 대강당
9.8	○서금발전협의회 제4대 회장단 이취임식	18:00	금정문화회관
9.9	○금정구민체육관 개관식	11:00	동래초교내
9.9	○금정구청장기 축구대회 개회식	14:00	남산동 외대구장
9.11	○금정예술제 추진상황 영상보고회	15:00	3층 영상회의실
9.11	○2006. 부산조각제 오프닝	18:00	금정문화회관
9.12	○범어사 용성계곡 환경정비	10:00	범어사주차장
9.15	○KNN방송 온천천관련 좌담회 녹화	10:00	온천천
9.15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30	의회 본회의장
9.18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10:00	1층 대강당
9.20	○제2회 반딧불이향연 개막식	18:30	남산동 외대구장
9.22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12:30	범어사경내
9.26	○부산대학교 명물거리 설계용역 시뮬레이션	16:00	3층 영상회의실
9.27	○금정예술제 개막식	19:00	구청광장
9.28	○온천천 자연형 하천 용역보고회	15:00	7층 대회의실
9.29	○구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5:00	7층 대회의실
10월			
10.12	○임용장 교부	10:30	1층대강당
10.12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19:00	요트경기장
10.14	○동래읍성 역사축제 개막식	18:20	동래읍성
10.17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00	의회본회의장

월 일	행사내용	시간	비고
10.17	○ 주민자치센터 숨시자랑 한마당 개최식	14:00	구민홀/대강당
	11월		
11.1	○ 직원정례 조례	09:00	1층 대강당
11.1	○ 산화경방 발대식	14:00	범어사 주차장
11.3	○ 국민독서경진대회 예선 시상식	17:00	7층 대회의실
11.6	○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위촉식	16:00	3층 영상회의실
11.9	○ 문화강좌 수강생 한마당 잔치 개막식	14:00	금정문화회관
11.15	○ 서금뉴타운 및 “부산도시 재정비 연구모임”	17:00	7층 대회의실
11.16	○ 신세계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10:30	3층 접견실
11.16	○ 화훼재배 농업인 간담회	11:00	3층 접견실
11.17	○ 금정소방서 故서병길 소방위 영결식	10:00	금정소방서
11.1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 대표단 방문	11:00	7층 대회의실
11.20	○ 요산박물관 개관식	15:00	요산생가
11.21	○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개최식	11:00	벡스코
11.28	○ 산성터널고가도로 반대운동 회장단 예방	10:30	3층접견실
11.30	○ 제1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1:00	의회 본회의장
	12월		
12.1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00	의회
12.1	○ 지하철 3호선 터널 관통식	15:00	명수정수장앞
12.6	○ 새마을 지회 자연보호 경진대회	10:00	범어사 주차장
12.6	○ 중장기발전계획 사전보고	14:00	3층 영상회의실
12.7	○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	10:30	자원봉사센터
12.7	○ 청년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17:00	1층 대강당
12.8	○ 고3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09:30	금정실내체육관
12.13	○ 중장기 발전계획 주민설명회	15:00	1층 대강당
12.18	○ 범어사 진입로 확장 및 주변시설 준공식	11:00	범어사 앞
12.19	○ 금정농협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15:00	3층 접견실
12.21	○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00	의회 본회의장
12.22	○ 현업종사원 정년 퇴임식	16:30	7층 대회의실
12.27	○ 금정구복지 장학금 수여식	15:00	7층 대회의실
12.28	○ 정년퇴임자 훈장 수여식	11:30	3층 영상회의실
12.28	○ 중소기업발전연합회	18:00	3층 영상회의실

# VI. 직 제 표

부산광역시 금정구  
(2007. 1. 1)

기 구	실·국·부 본	실·과 담당관	담당· 팀	의 회	직 기 속 관	사업소	동
	3 국	2 실 15 과	78	1 국 2 담당	1	2	18



기획	지역경제	총무	문화예술	경리	세무관리	민원	복지행정	가정복지	청소행정	환경관리	농업행정	재난관리	교통행정	건축지도	건설행정	토지행정	보건행정	서무	관리	의정
혁신분권	기업지원	직원복지	관광문화재	회계제도개선	재산세	문서정보	기초생활	노인복지	청소지도	환경지도	농지	복구지원	자동차관리	개발행정	토목 1	지적	가족보건	열람	공연	의사
예산	상공	자치행정	공보	재산관리	취미·기록세	호적	자활고용	장애인복지	오수정화	수질관리	산림	민방위	주차단속	일반건축	토목 2	부동산관리	의약		시설관리	
법무통계	정책개발	구민지원		청사관리	자동차세	정보보호	통합조사	아동청소년	재활용	식품위생	FO원	가로정비	교통운영	공동주택	하천관리	방역				
감사				통신	세입·수입	과표평가				고용·위생		광고·홍보	주차·과징	재개발	도시계획	거주·유치				
					채널·청구										도시정비					

## 구정백서발간연혁

- 제 1 집 : 1991년
- 제 2 집 : 1992년
- 제 3 집 : 1994년
- 제 4 집 : 1995년
- 제 5 집 : 1996년
- 제 6 집 : 1997년
- 제 7 집 : 1998년
- 제 8 집 : 1999년
- 제 9 집 : 2000년
- 제 10 집 : 2001년
- 제 11 집 : 2002년
- 제 12 집 : 2003년
- 제 13 집 : 2004년
- 제 14 집 : 2005년
- 제 15 집 : 2006년
- 제 16 집 : 2007년

## 2007 구정백서

---

2007년 8월 일 인쇄

2007년 8월 일 발행

발행 : 釜山廣域市金井區

편집 : 企 劃 豫 算 室

---

<非 賣 品>